

일본의 신도 문화

사학과 김윤경

1.서론

이번 동계문화체험 까지 일본에 3번 방문했었다. 여행으로 갔었던 일본은 이웃 나라인 한국 사람이 여행하기에 무척 편리했다. 대도시의 경우 한국어, 영어로 써있는 메뉴판 간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글맵을 통해 쉽게 여행할 수 있었다. 오사카 중심은 서울의 모습과도 비슷했고, 교토, 나라를 방문했을 땐 한국의 역사도시를 떠올리며 유사한 점이 많다고 느꼈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중 일본의 독특한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신도' 문화이다. 일본은 자연물에 대한 숭배가 종교로 발전한 것으로, 애니미즘의 일종이다. 일본에 돌아다니면서 길을 가다가도 볼 수 있었던 신사나 동상 신사를 대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한국의 모습과 다르면서 인상 깊었었다. 동계 문화체험에 동행하셨던 가이드 분도 일본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절에 다닐 정도로 신도는 일본 사람들 생활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오사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신사, 동상, 축제를 접하면서 도시화된 공간 내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는 신도 문화가 인상 깊었고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

2.본론

신도

일본에는 정말 많은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일본 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이틀 여러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 즉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 것이 일본의 전통적인 자연신앙이며, 이 신들을 모아 제사지내는 곳이 신사이다. 이 신도의 특이한 점은 내세관, 교의, 경전, 교주 모두가 없다는 점이다. 또 설교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신사를 찾는 일본인들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의 메이지유신으로 근대국가로 나아가자 정부는 신도 국교화 정책을 추진하여 '신불 분리령'을 내려 신도와 불교를 분리시키고 불교를 배격하였다. 1870년에는 국가 신도를 국교로 정하고 각 지역별로 신사를 체계화 하여 정점에 천황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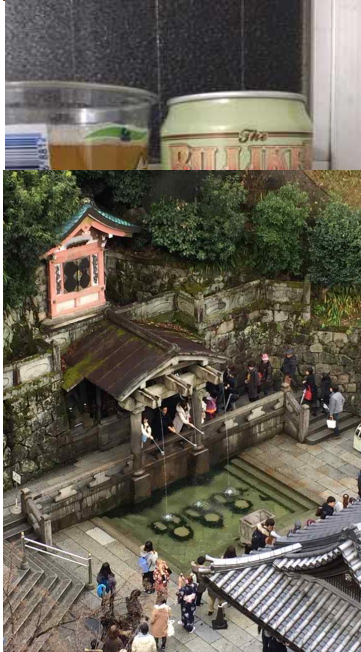
빌리켄

이 곳은 호텔 밖에서 전철을 탈 때 항상 이동하는 상가 통로였다. 여기에 빌리켄이라는 동상이 있는데 이 빌리켄은 일본에서 유명한 미국캐릭터인데 행운의 신이라고 한다. 옛날에 조선 총독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다사케랑 외모가 비슷해서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빌리켄 상을 보면 발만 닳아 있는데 발을 만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발을 만져서 그 부분만 하얗게 변해있다. 우리 조도 일본 여학생들이 발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발을 만지고 소원을 빌었다.



또 빌리켄 맥주가 있다. 일본에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맥주에도 신의 이름을 딴 맥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빌리켄 뿐만이 아니라 에비스 신이 새겨진 에비스 맥주도 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신의 맥주를 안 먹어볼 수 없어서 행운을 가져다 주길 소망하면서 빌리켄 맥주를 먹어봤다.



첫날 방문한 도쿄의 청수사 인데 일본에서는 신사에 들어가기전에 항상 이런 신사에서 손을 씻고 들어간다고 한다. 모든 신사앞에는 작게라도 해서 손을 씻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손을 씻고 입을 행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잠깐 들렀다 나오는 것이 아닌 진지한 모습으로 신사에 출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키티신사

교토를 구경하다 이색 적인 공간을 만났다. 키티의 상이 있는 키티 신사였다. 정말 키티를



숭배하는 공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캐릭터와 신사와 접목시켰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로보트 태권브이나 검정고무신 기영이가 절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일본의 대표 캐릭터인 캐릭터와 신사를 접목시킨 것이 일본의 자연스러운 신도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서 만난 축제 (토카 에비스)

하잇 도쥬 조장 친구중 일본인이 있었는데 큰 축제를 하고 있다는 추천으로 조원 한명과 같이 어떤 축제인지도 잘 몰랐지만 구글맵을 켜고 무작정 가게 되었다. 에비스 신사가는 방향은 정말 많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30-40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사카 내에서 어느 관광지를 가던지 한국, 중국 사람들



로 가득했었는데 이 축제에서 만큼은 우리만이 한국인일까 할 정도로 일본인들이 많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축제에 대해 알아보니, 이는 '토카에비스'라는 축제라고 한다. 이 축제는 매년 1월에 3일 동안 열리는 축제로 운 좋게 동계문화 체험의 날짜랑 겹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 축제는 상업의 번성을 기원하는 상인들의 축제이며, 매년 약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큰 축제라고 한다.

이마미야진자 역에 내리자마자 신사 까지 쪽 펼쳐있는 포장마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장소가 한번에 축제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포장마차마다 축제를 즐기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포장마차에는 타코야끼, 야끼소바, 오코노미야끼 같은 일본의 유명한 음식 뿐 아니라 칵테일, 카스테라, 치킨 등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다.



조원과 같이 엄청난 인파에 놀랐고,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에 눈을 떼지 못했었다. 인파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신사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신사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줄을 선 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인상 깊었던 것은 부모님이랑 같이 축제에 온 아이가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손하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신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어린 아이 또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일본에서 신도가 그만큼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단지 문을 들어가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며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경건해보이기도 했다.

신년을 맞은 일본인들은 길거리에 잎이 달린 대나무가지를 들고 다닌다. 신사에 가까워질 수록 많은 사람들이 손에 봉투와 대나무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사 입구에서 기도와 같은 자세를 취한 다음 저 더미로 가지고 온 나무와 봉투를 던지는데 아직 까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조원이랑 이 장면을 보



면서 흥미로워 했는데 추측하기를 신에게 드리는 선물 아니면 액땜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던지는 봉투 안에는 어떤 선물이 있을지 상상해 보기도 했다.

신사에서 나오는 길에 에비스 맥주와 스시를 사들고 길에서 먹었다. 에비스 축제에 맞게 편의점에서는 에비스 맥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날 굉장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에비스 축제에서 마셔본 스시와 에비스 맥주맛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타국에서 전통 축제에 참여해 본적은 처음이어서 인상 깊었다. 에비스 축제는 17세기부터 이어진 축제라고 하는데 전통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나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에비스는 상업의 신이라고 하는데 에비스 신을 통해 부를 얻기 위한 많은 일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었던 장소였다.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나라에 위치한 사슴공원에 방문했었다. 이 공원에는 4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약 1200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다고 한다. 유적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나라공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가이드님께서 사슴공원이 어떻게 조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었다. 전설에 가스가타이샤(신사) 창건당시 가시마 진구신사에서 신을 모셨었는데 그 때 신이 흰 사슴을 타고 왔다고 해서 나라 공원의 사슴을 신의 사자



로 여겨 지금 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옛 역사에서 신성시 여기는 사슴이 자기 집 앞에서 죽었을 경우에 그 집 주인은 처벌 받기도 해서 무척 조심스럽게 다루고, 사슴을 지키기 위해 고군 분투 했다고 한다. 나라 공원에 갔을 때 자신이 신성시 여겨짐 받는 다는 것을 알았는지 사슴공원에서 만난 사슴들은 겁이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들이받고 물고 침을 문혔다. 넓은 땅과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야말로 나라 공원은 사슴들을 위한 천국이었다.

3.결론 및 느낀점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것 중 일본유명인들의 신사참배이다. 신사 참배에 관한 내용이 기사화 되었을 때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곤 한다. 나도 원래 같은 입장이었는데 이번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신사가 일본의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순수한 참배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써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범 기구의 신사참배는 이웃국가와의 분쟁을 사지만, 순수한 신도 문화는 일본의 자랑 거리로 삼을 수 있다고 느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전통을 유지하고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신도 문화를 이번 동계문화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